

서울 정신건강 Issue&Brief



2024년 1호

2021~2023년 정신응급 출동 대상자 특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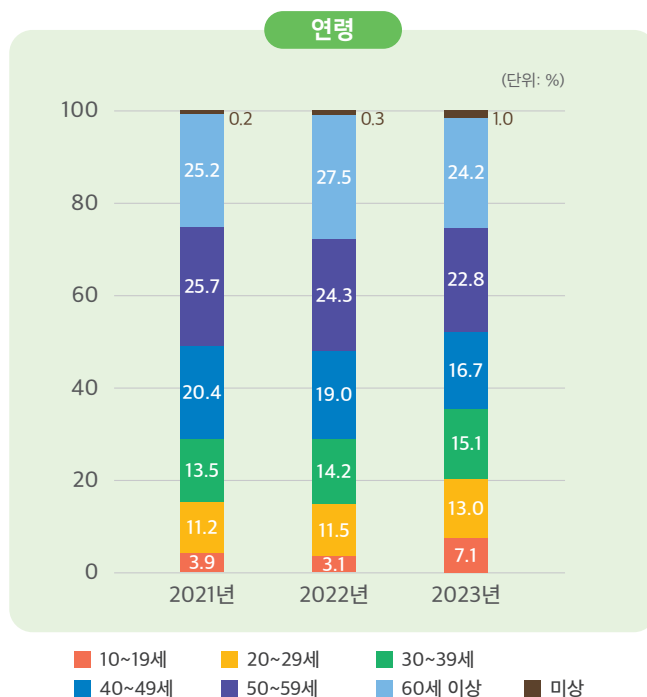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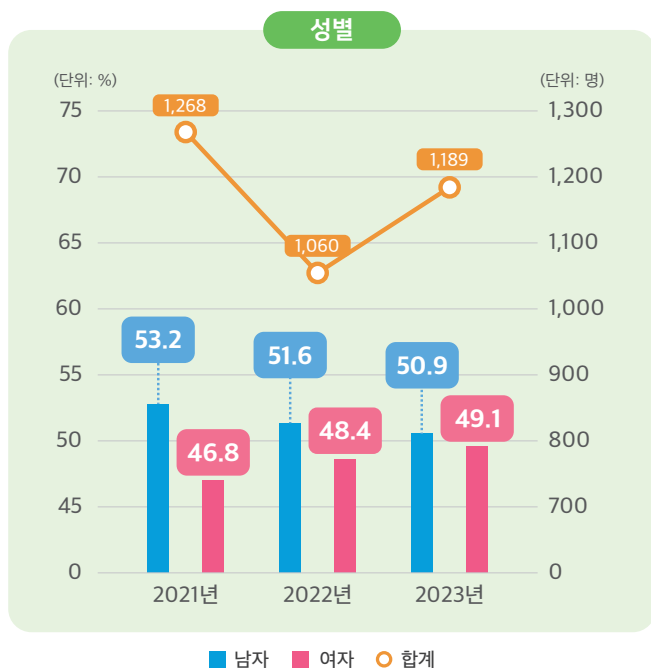


개요

-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는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 발생하는 정신응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음.
- 서울시 정신응급대응 사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응급출동에 관한 문항(출동 요청 기관, 출동 인력 주요 조치, 개입 대상 정보 등)을 구성하여 연차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음.
- 응급출동에 관한 문항 중 정신응급 출동 대상자들의 연도별 특성 변화와 '23년도의 권역별 특성 차이에 대해 확인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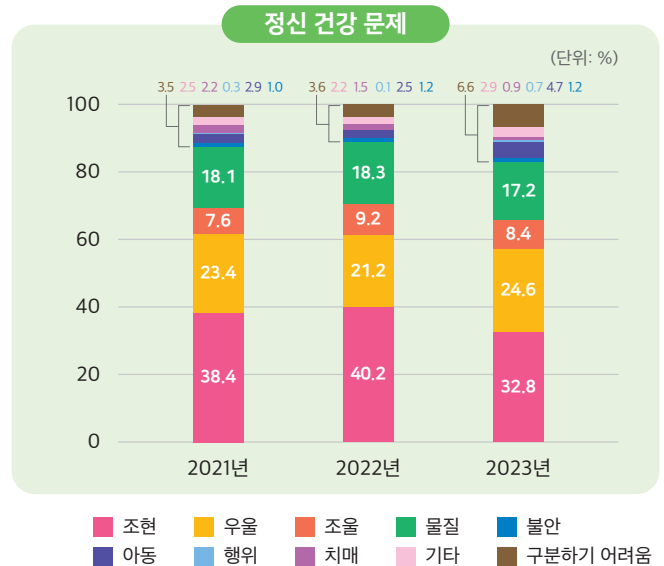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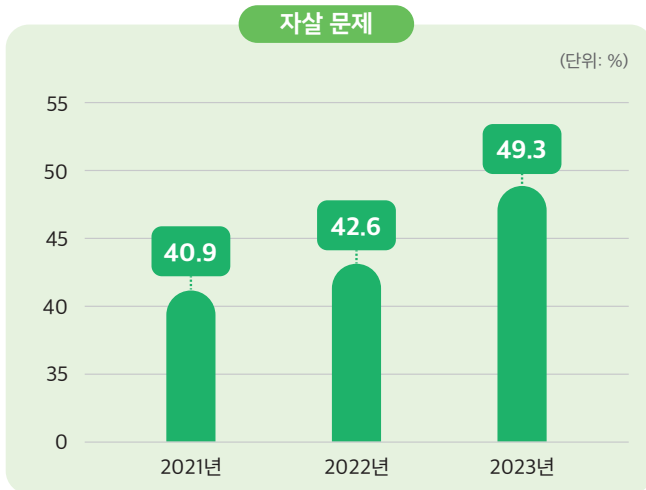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출동하여 개입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2021~2023년 응급출동 개입 대상자 수는 연도별 증가/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 2021년 대비 2023년에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대는 10대(82.1%)였으며,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대는 40대(-18.1%)였음(연령대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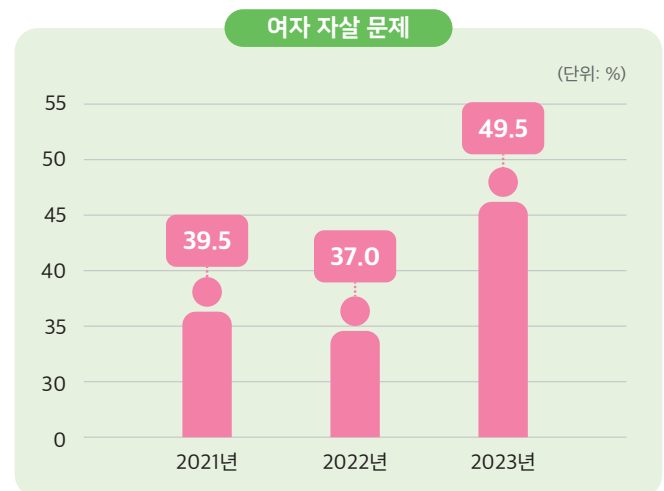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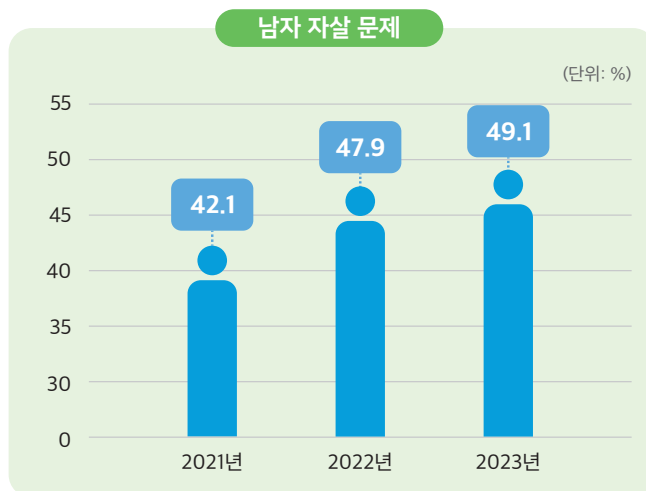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출동하여 개입한 대상자의 자살 문제 및 정신건강 문제

- 연도별 자살 문제가 있는 대상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함(2021년 대비 2023년 20.5% 증가).
- 2021년 대비 2023년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정신건강 문제는 행위중독(133.3%)이었으며, 감소율이 가장 높은 정신건강 문제는 치매(-59.1%)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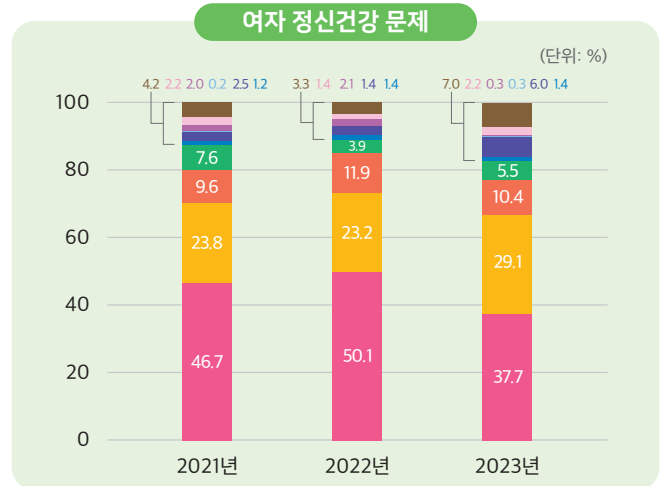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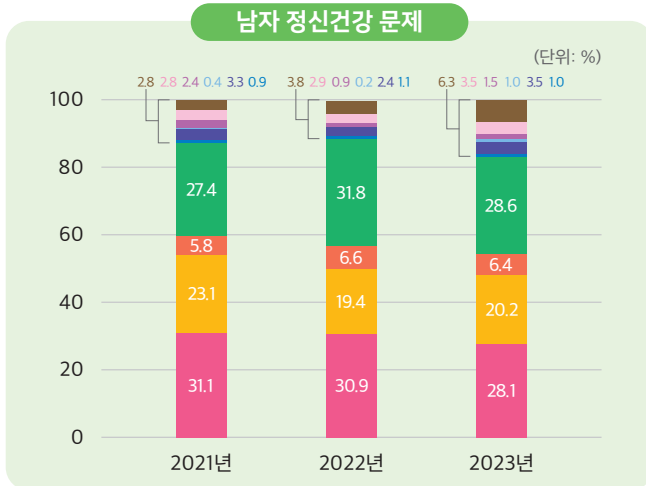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출동하여 개입한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자살 문제

- 자살 문제가 있는 남자 대상자의 비율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여자 대상자는 연도별 증가/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음.
- 그러나 2021년 대비 2023년의 자살 문제가 있는 대상자 비율은 남자와 여자 모두 증가하였음.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출동하여 개입한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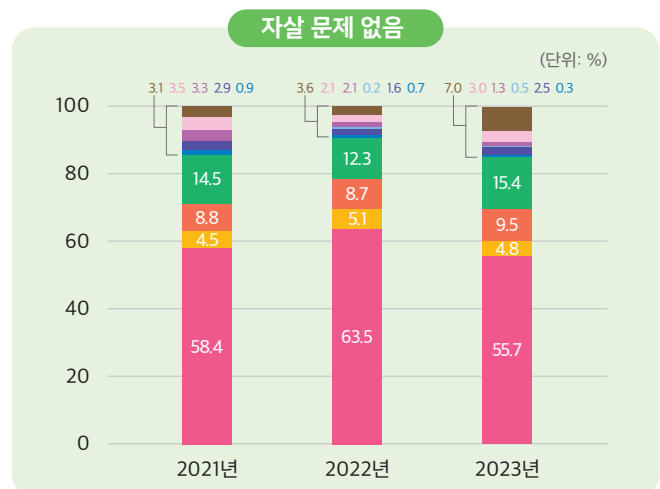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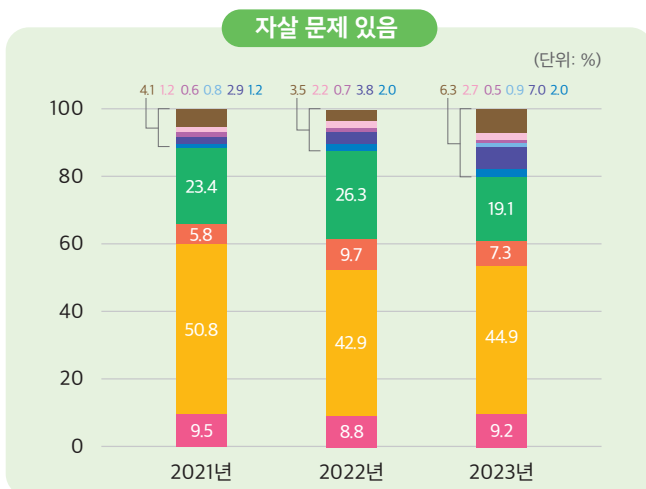
- 남자 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조현병(2021년) 및 물질중독(2022~2023년)이었음.
- 여자 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조현병(2021~2023년)이었음.



조현 우울 조울 물질 불안
아동 행위 치매 기타 구분하기 어려움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출동하여 개입한 대상자의 자살 문제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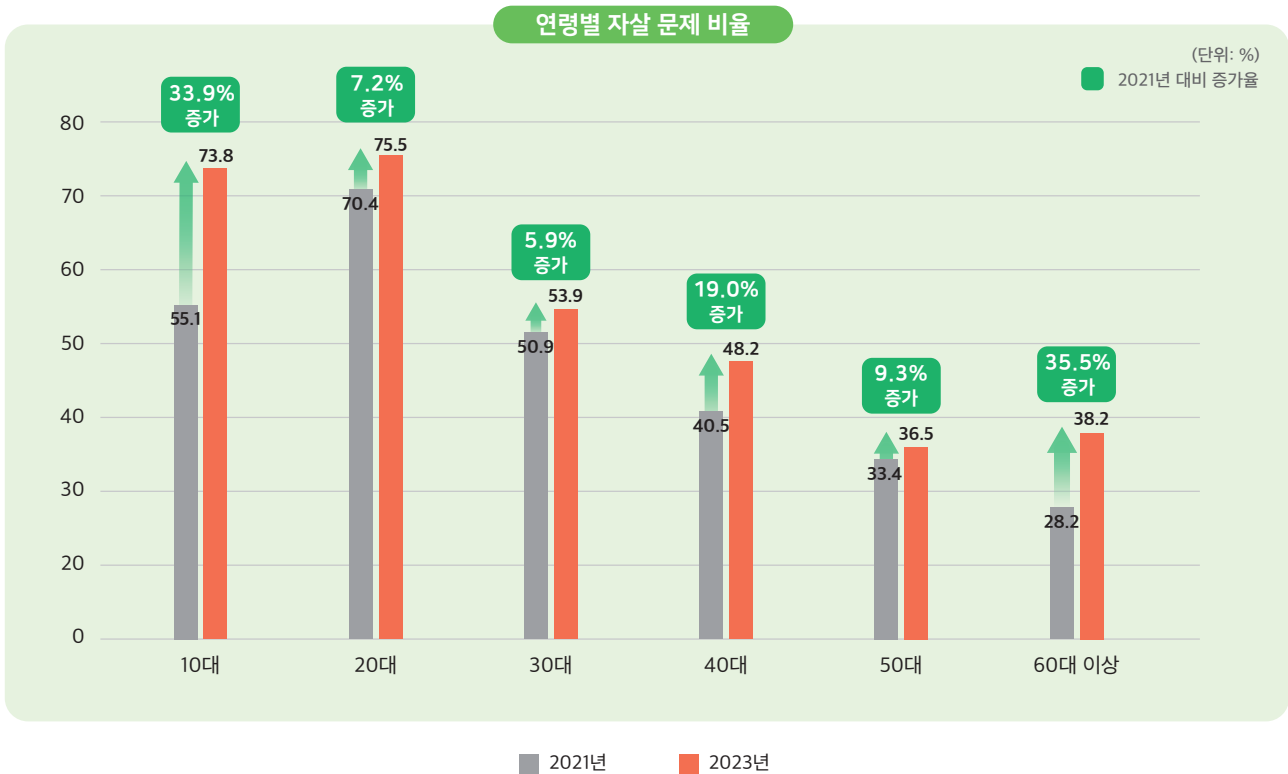
- 자살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우울증(2021~2023년)이었음.
- 자살 문제가 없는 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조현병(2021~2023년)이었음.



조현 우울 조울 물질 불안
아동 행위 치매 기타 구분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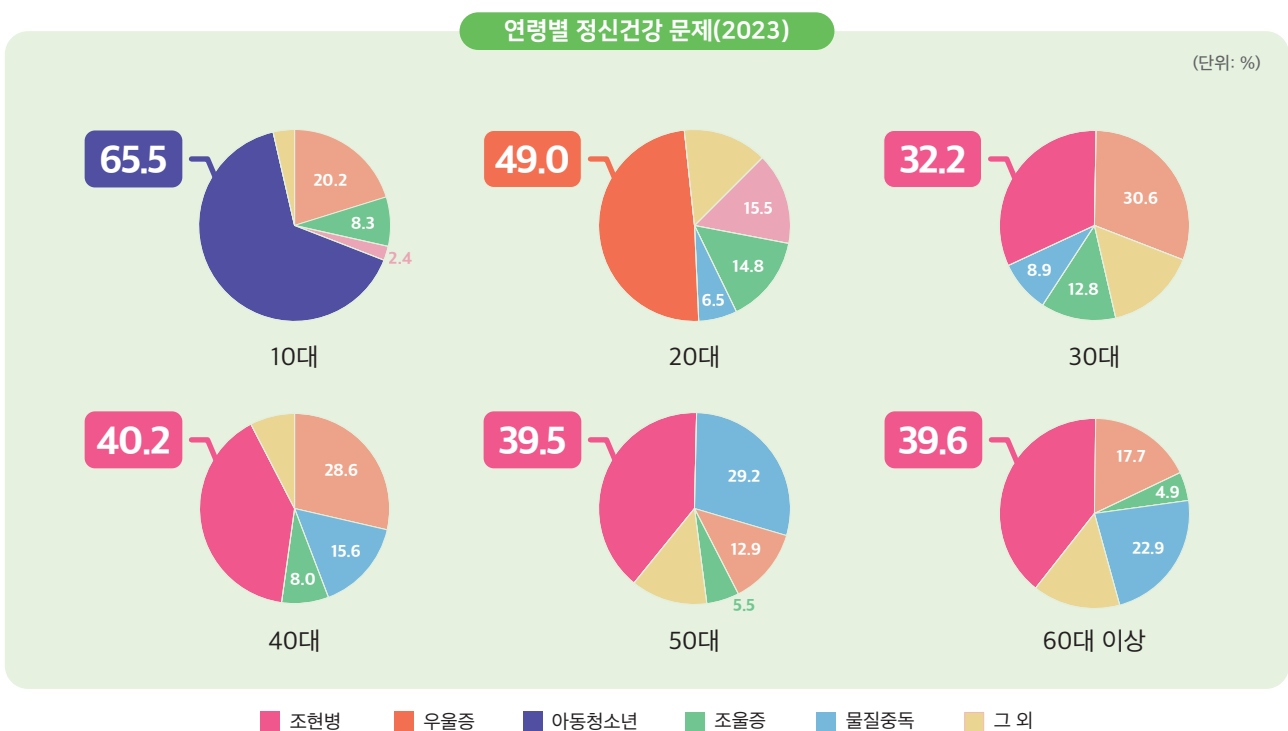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출동하여 개입한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자살 문제

- 2021년 대비 2023년의 자살 문제는 모든 연령에서 증가하였으며, 60대 이상에서 35.5%로 가장 많이 증가함.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출동하여 개입한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 2023년에는 10대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65.5%로 가장 많았고, 20대에서는 우울증이 49.0%를 차지하였음. 30대 이상에서는 조현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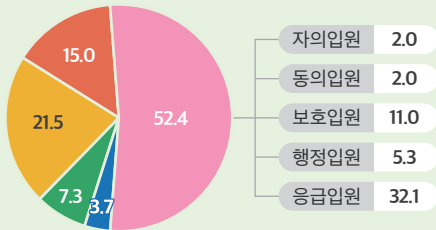


✓ 2023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출동하여 조치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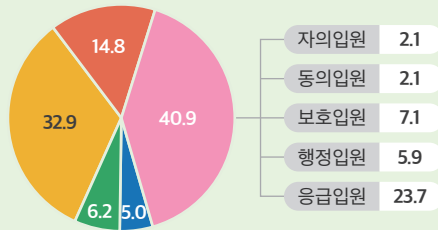
- 서울 동북권역, 동남권역 및 서남권역에서는 정보 제공으로 조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서북권역에서는 응급입원으로 조치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응급입원으로 조치한 비율은 서북권역 > 동남권역 > 동북권역 > 서남권역 순으로 나타남.
- 정보 제공과 보호자 인계로 조치한 비율은 서남권역 > 동북권역 > 동남권역 > 서북권역 순으로 나타남.

권역별 조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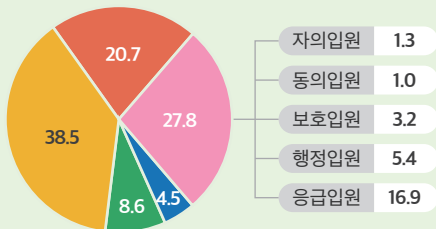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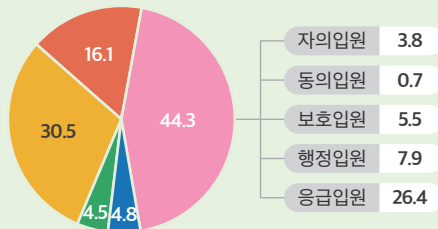
서북권 (246건)



동북권 (337건)



서남권 (314건)



동남권 (292건)

입원
보호자 인계
정보 제공
타 서비스 연계
외래진료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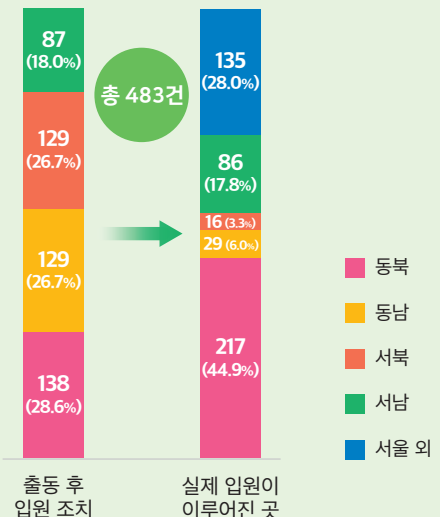
- 동북권역에 위치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조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짐.
- 전체 자의입원 건수 중 48.1%, 전체 동의입원 건수 중 64.7%, 전체 응급입원 건수 중 49.1%가 동북권역에 위치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짐.
- 전체 보호입원 건수 중 36.4%, 전체 행정입원 건수 중 45.2%가 서울 외 지역에 위치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짐.

서울시 지정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응급의료센터 분포



권역별 입원 조치 결과

(단위: 건)



결론 및 제언

✓ 전체 결론 및 제언

- 응급출동하여 개입한 대상자의 성비 차이는 크지 않음. 그러나 자살 문제를 보인 대상자 증가율은 남성(16.6%)보다 여성(25.3%)이 더 높음.
- 남녀 대상자 모두에게 보인 주된 정신건강 문제는 조현병으로 나타남. 여자 대상자보다 남자 대상자의 물질중독 비율이 훨씬 높다는 차이가 있었음. 남성이 여성보다 물질중독(알코올·약물)과 반사회성 인격장애 유병률이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기분장애(양극성장애 제외)와 불안장애 유병률이 높다는 기존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정신응급 상황과 유병률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함.
- 응급출동 개입 대상자 중 40대 이상의 비율은 연평균 68.6%였으며, 50대 이상의 비율은 연평균 49.9%로 나타남. 40대부터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는 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응급출동하여 개입하는 대상자들이 중복질환(신체·정신)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으며, 더 나아가 국가에서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자살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주된 정신건강 문제는 우울증, 자살 문제가 없는 대상자의 주된 정신건강 문제는 조현병이라는 차이가 있었음. 이는 각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보이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연령별 결론 및 제언

- 자살 문제가 있는 대상자 비율이 높게 증가한 연령대는 60대 이상(35.5%)과 10대(33.9%)였음. 특히 최근에 아동, 청소년의 자해·자살 문제 이슈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10대 자살 문제에 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연령대별로 나타난 주된 정신건강 문제가 상이함. 10대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우울증, 20대는 우울증, 30~40대는 우울증과 조현병, 50~60대는 조현병과 물질중독 문제를 보였음.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주된 정신건강 문제 등을 바탕으로 한 자원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경험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연령대별 정신건강 질환 현황(2018년)」, 「시군구 성별 연령별 주요 정신건강 질환 통계(2018~2022년)」^{*)} 등을 확인하였으나, 데이터의 한계(연도·진단명 상이 등)로 인해 비교가 불가하였음.

✓ 조치 결과에 대한 결론 및 제언

- 서울 지역 및 서울 외 지역에 위치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입원 유형은 응급입원이었음. 이는 응급출동 업무의 특성과 연관된 결과라고 보여짐.
- 동북권역에 위치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자의·동의·보호·행정·응급입원 조치한 건수가 타 권역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동북권역에 위치한 정신의료기관 자원 현황(지정정신의료기관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보다 원활한 정신응급 현장대응을 위해서는 자원의 확보 및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무리

- 본 현황을 통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응급출동하여 개입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및 연도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음. 차후에는 통계학적 분석이 추가되어야 함.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대응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있음. 앞으로도 본 기관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경험하는 대상자의 특성(성별, 나이, 정신건강 문제 등)을 꾸준히 파악하여, 정신응급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 시군구 기준: 의료기관 소재지 / 정신질환: ADHD,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5개 한정)